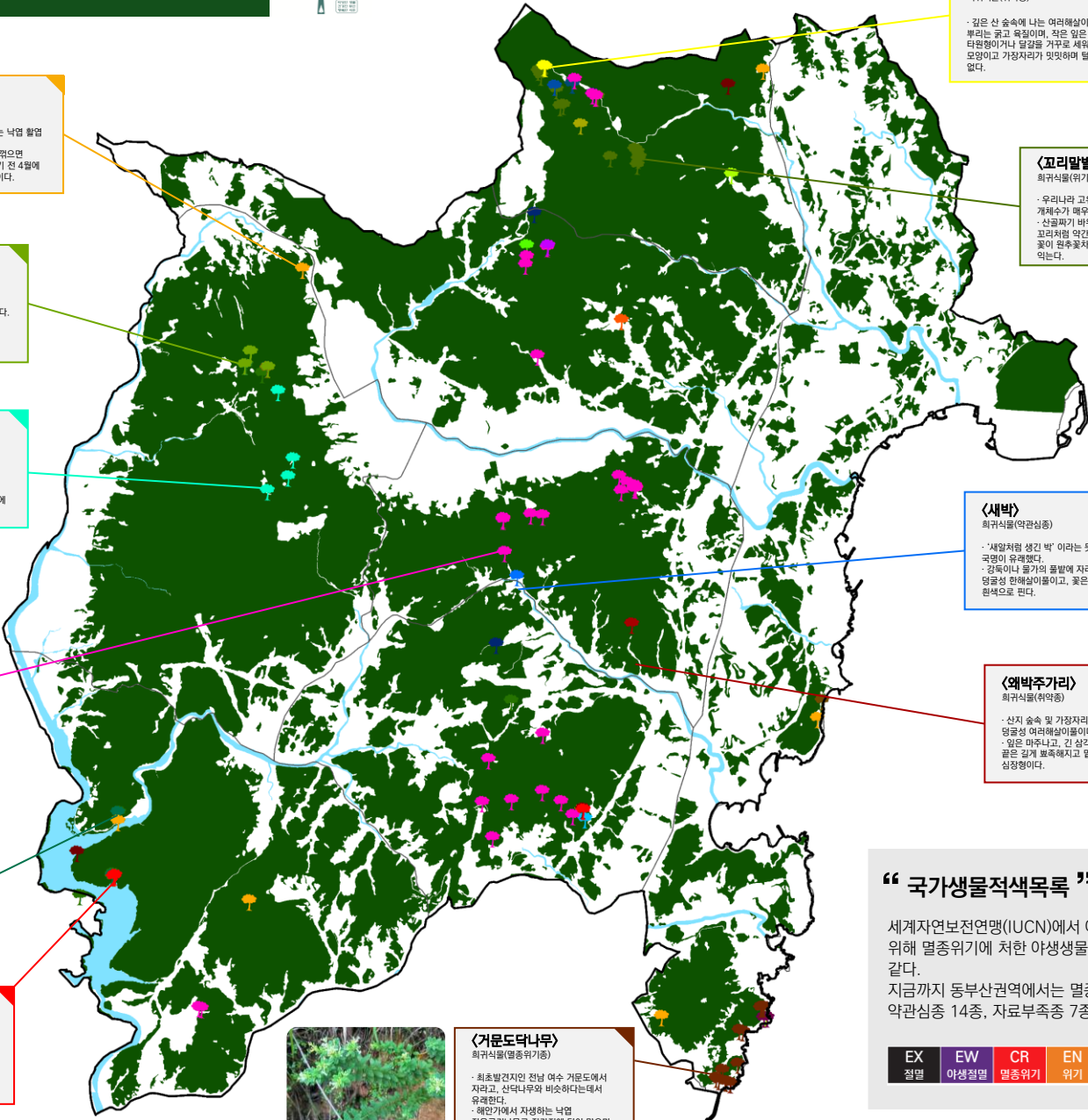


동부산권역 희귀식물



<목련>
희귀식물(멸종위기종)

- 높은 산의 숲속에서 자라는 낙엽 활엽 큰키나무이다.
- 가지는 굵으며 털이 없고 관으면 활기가 없다. 꽃은 잎이 나기 전 4월에 피며, 꽃잎은 6-9장, 흰색이다.



<자주명귀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 통발과 여러해살이풀로, 습지에서 살며 포충남이 있어 벌레를 잡아먹는다.
- 주로 남부지방에서 발견되며, 습지개발로 인해 자생지가 급격히 감소했다.



<산들개>
희귀식물(취약종)

- 줄기는 네모지며 가지를 치고 연한 자주색을 띠며, 마디에 짧은 흰털이 있다.
- 꽃은 7-9월에 피며 줄기와 가지 끝에 총상꽃차례로 달린다.



<육녀꽃대>
희귀식물(자료부족종)

-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국명은 처음 발견된 장소가 거제도 육녀봉인에서 유래한다.
- 숲속 바그늘이나 양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꽃은 4-5월에 4장의 잎 사이에서 올라온다.



<모근이주걱>
희귀식물(취약종)

- 숲속 뽕이 잘 드는 산성 습지, 늪 주변에서 여러해살이풀로 자라는 식충식물이다. 작은 벌레가 생물에 닿으면 붙어버리는데, 이 때 잎이 오므라지면서 생물이 소파력을 분비해 벌레를 소화한다.



<망귀개>
희귀식물(취약종)

- 가는 지하경이 땅속으로 뻗으며 벌레잡이주머니가 달리며, 꽃은 8-9월에 밝은 황색으로 핀다.
- 자주명귀개에 비해 잎이 선형이고 꽃이 황색으로 구별된다.



<거문도닥나무>
희귀식물(멸종위기종)

- 최초발견지인 전남 여수 거문도에서 자라고, 신석나무와 비슷하다는데서 유래한다.
- 해안기에서 자생하는 낙엽 제충목나무로 간가지에 털이 많으며 적갈색이다.

<백작약>
희귀식물(취약종)

- 깊은 산 숲속에 나는 여러해살이풀로, 뿌리는 굵고 육질이며, 작은 잎은 긴 타원형이거나 달걀을 가루로 세워놓은 모양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여 털이 없다.



<꼬리말발도리>
희귀식물(취약종)

-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자생지 및 개체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 산골짜기 배위틈에서 자라며, 잎 끝이 꼬리처럼 약간 길어진다. 4-5월 흰 꽃이 원추꽃차례로 피며 9월에 열매가 익는다.



<새박>
희귀식물(약관심종)

- '생약처럼 생긴 박'이라는 뜻에서 국명이 유래했다.
- 강둑이나 물가의 풀밭에 자라는 덩굴성 한해살이풀이고, 꽃은 7-8월에 흰색으로 핀다.



<왜박주거리>
희귀식물(취약종)

- 산지 숲속 및 가장자리에서 자라는 덩굴성 여러해살이풀이다.
- 잎은 마주나고, 긴 삼각상 피침형으로 끝은 강게 뾰족해지고 일부부분은 심장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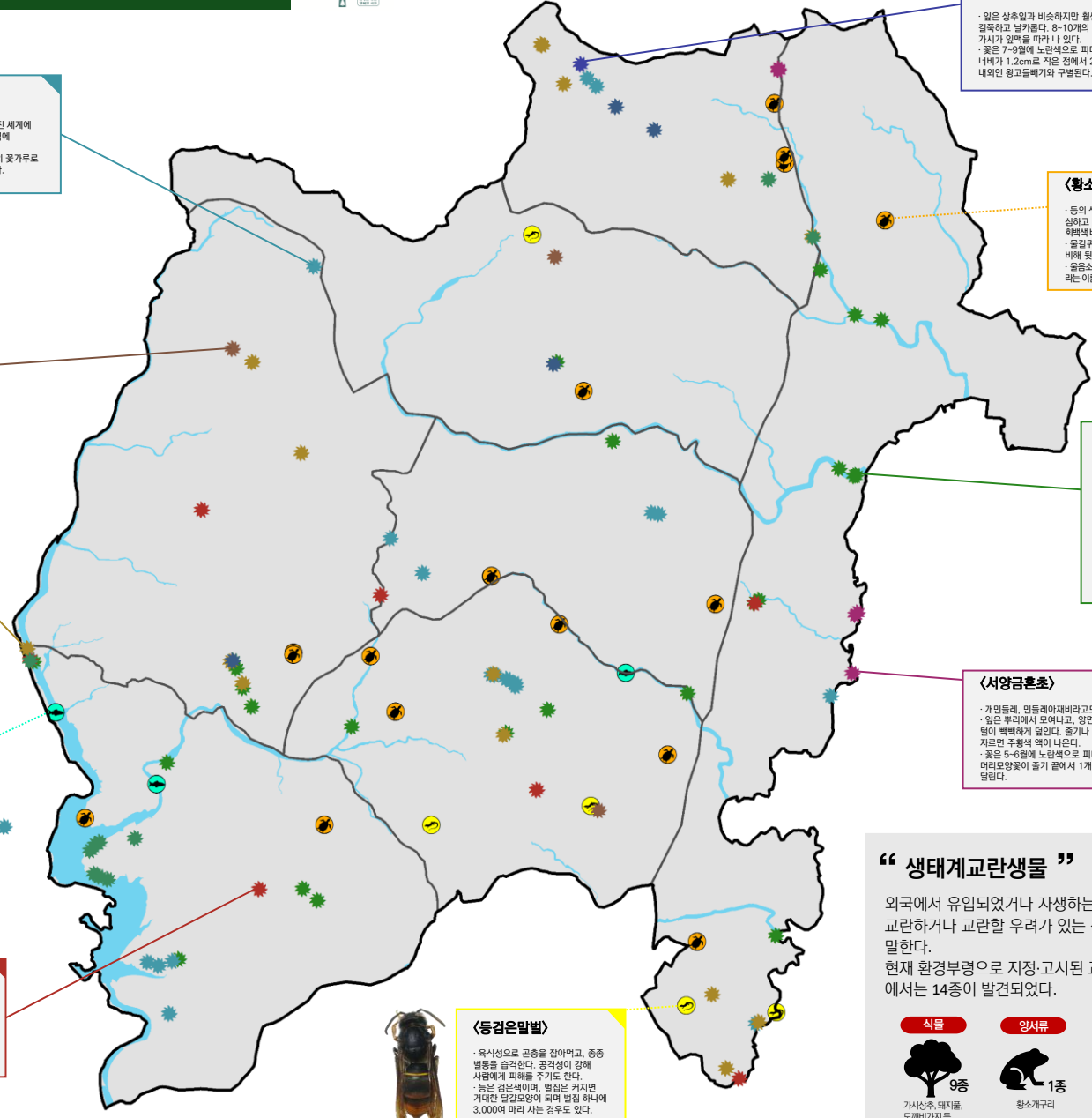
“ 국가생물적색목록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야생생물의 절멸위험을 평가하고 분류하기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9범주로 나눈 것으로, 그 범주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동부산권역에서는 멸종위기종 4종, 위기종 8종, 취약종 15종, 약관심종 14종, 자료부족종 7종 등 총 48종이 발견되었다.

EX	EW	CR	EN	VU	NT	LC	DD	NE
절멸	야생멸종	멸종위기	위기	취약	준위협	약관심	자료부족	미평가

동부산권역생태계교란종



<뒤펀>

- 북미 원산의 귀화식물로, 전 세계에 귀화되었으며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있다.
- 9-10월에 개화하며 다량의 꽃가루로 식물성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애기수염>

- 길가, 황무지, 숲 가장자리 빈터에 흔하게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 수염과 비슷하지만 작아서 애기수염이라 하며, 전체가 붉은색이 돌고 신맛이 난다.



<미국쑥부쟁이>

- 쑥부쟁이 종류는 흔히 연보랏빛 꽃인데, 미국쑥부쟁이는 흰 꽃이 핀다.
- 꽃은 쑥부쟁이보다 작고, 연꽃 표면 개화축을 더 달았다. 잎은 어긋나고, 적은 가지의 잎은 붉은 선형 또는 송곳형이다.



<배스>

- 등 쪽은 검은 녹색, 몸에는 불규칙적인 흑색 반점이 산재하며, 다른 민물고기에게 비해 힘이 매우 크다.
- 육식성 어종이다. 치어 때는 갑각류를 주로 먹고, 다 자란 후에는 수서곤충, 어류 등을 잡아먹는다.



<도깨비가자>

- 강둑이나 빈터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별모양 잎과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
- 꽃은 흰색 또는 연한 보라색이며, 열매는 둥글며 주황색으로 익는다.



<등검은말벌>

- 육식성으로 곤충을 잡아먹고, 종종 벌통을 습격한다. 공격성이 강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 등은 검은색이며, 발톱은 커지만 거대한 달걀모양이 되며 발톱 하나에 3,000여 마리 사는 경우도 있다.

<가시상추>

- 잎은 상추잎과 비슷하지만 훨씬 길쭉하고 날카롭다. 8-10개의 두툽한 가시가 잎맥을 따라 나 있다.
- 꽃은 7-9월에 노란색으로 피며 전체 너비가 1.2cm로 작은 정에서 2cm 내외인 원고들깨기와 구별된다.



<황소개구리>

- 등의 색깔은 녹색, 암갈색 등 변이가 심하고 불규칙한 무늬이다. 배면은 화려한 바탕에 암갈색 무늬가 산재해있다.
- 울갯막이 잘 발달했으므로, 암컷에 비해 뒷발이 매우 길다.
- 울음소리가 황소와 비슷해 황소개구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단풍잎돼지풀>

- 전체에 거센 털이 있으며, 돼지풀에 비해 전체가 크며 잎은 마주나고 단풍잎처럼 3-5갈래로 깊게 갈라진다.
- 꽃은 7-10월에 암수한포기로 피며, 노란빛이 도는 녹색 꽃이다.



<서양금혼초>

- 개인들레, 민들레야채라고도 한다.
- 잎은 뿌리에서 모여나고, 양면에 거친 털이 백백하게 덮인다. 줄기나 잎을 자르면 주황색 액이 나온다.
- 꽃은 5-6월에 노란색으로 피며, 머리모양꽃이 줄기 끝에서 1개씩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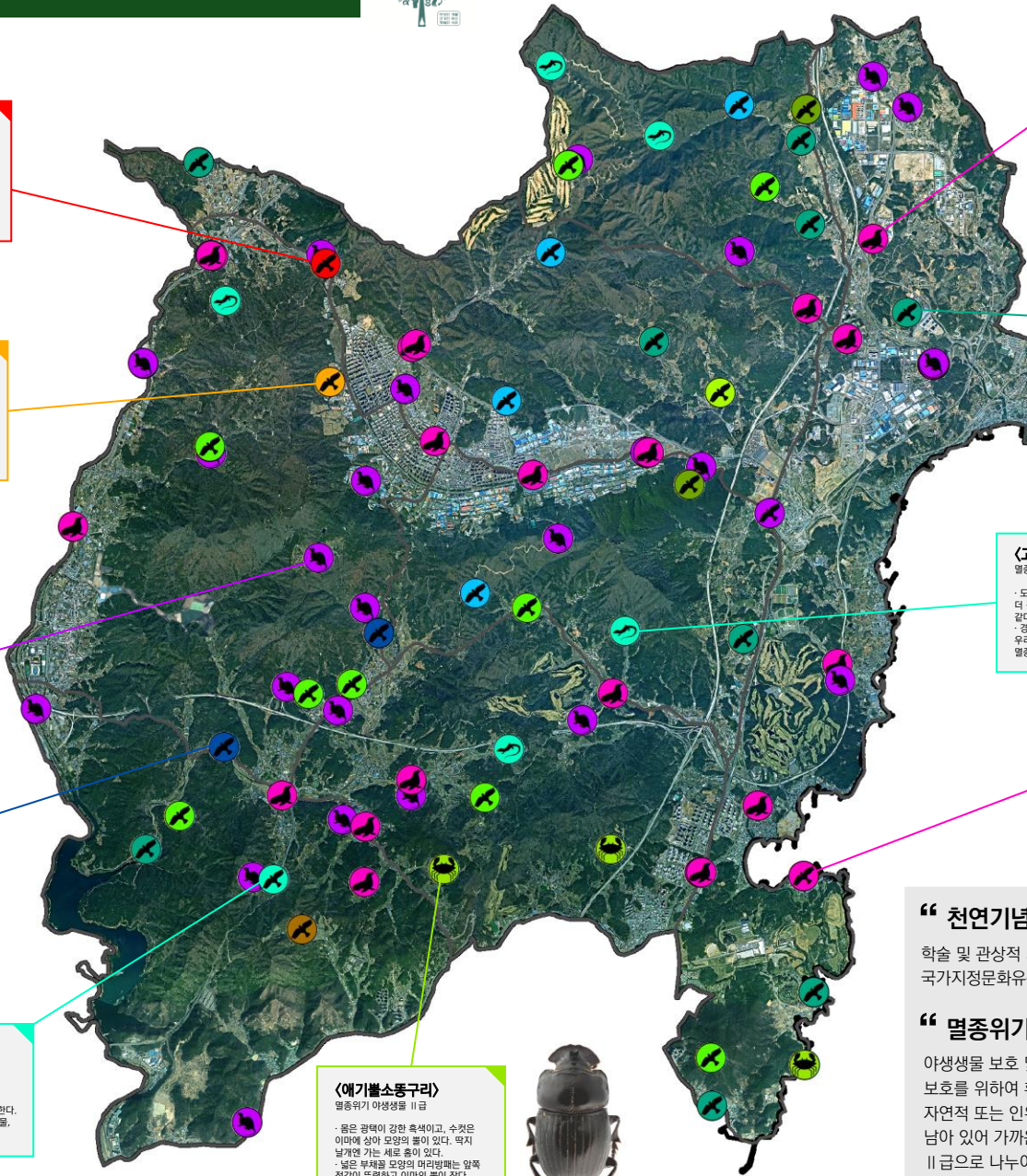
“ 생태계교란생물 ”

외국에서 유입되었거나 자생하는 생물 중에서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환경부령으로 지정·고시된 교란생물은 총 38종이며, 제3차 부산자연환경조사에서는 14종이 발견되었다.

식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어류
9종 가시상추, 돼지풀, 도깨비가자 등	1종 황소개구리	1종 붉은귀개	1종 등검은말벌	2종 배스, 블루길

동부산권역 보호종 (식물 제외)



<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 몸 뒷면은 어두운 청회색, 아랫면은 흰색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다.
- 날 날 때는 무늬는 크고 뚜렷하며, 눈테는 노란색이다.
- 꿩, 오리 등 주로 조류를 주식으로 하며, 육상의 설치류를 잡아먹기도 한다.

<벌새>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로, 주로 까마귀류, 멧닭류 등 다른 새의 동지를 이용한다.
- 광범위 유흥, 번데기, 성충 등을 잡아먹는다.

<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 털색은 회갈색, 회백색 뺨에는 세줄의 갈색 줄무늬가 있다.
- 고양이처럼 생겼으나 훨씬 크고, 모피에 반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흰목물떼새>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 눈테는 황색, 눈앞은 흑색, 머리 뒤와 귀깃은 흑색이며, 가슴이 흑색 줄무늬는 중앙부에서 가늘어진다.
- 지갈이 없은 하천이나 강가에서 서식하며, 지갈 사이에 등지를 만들고 4개의 알을 낳는다.

<솔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 몸은 전체적으로 적갈색이며, 밝은 갈색의 세로줄무늬가 있다.
- 겨울철새지만 가끔 뒷새화하기도 한다.
- 곤충을 비롯한 무척추동물, 죽은 동물, 소형 포유류, 어류 등을 주로 먹는다.

<애기뿔소뽕구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I급

- 몸은 광택이 강한 흑색이고, 수컷은 이마에 상아 모양의 돌이 있다. 딱지 날개엔 가는 세로 홈이 있다.
- 넓은 부채꼴 모양의 머리받침은 앞쪽 정적이 뚜렷하고 이마의 돌이 작다.

<수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 털색은 암갈색이며, 몸 아래는 다소 밝은 갈색, 턱 아래부분은 흰색이다.
- 수중생활을 하기엔 알맞게 넓다라는 짧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다.
- 야생성이며, 시각, 청각,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



<참조롱이>
천연기념물

- 수컷은 머리와 꼬리가 흰색이며, 꼬리 끝과 날개 끝은 검은색이다. 등은 갈색 바탕에 검은색의 반점이 있다.
- 알갭은 꼬리를 포함한 몸의 뒤쪽이 갈색이며, 날개 끝과 꼬리 끝만 검은색이다.



<고리도롱뇽>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 도롱뇽과 형태적으로 비슷하나 몸집이 더 작고, 꼬리갈이와 몸통 길이가 거의 같다.
-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며, 서식지 파괴로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참수리>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 몸은 전체적으로 흑갈색이며, 꼬리는 새기꼴로 길며 흰색이다. 부리가 노랗다.
- 매우 드문 겨울철새로, 해안가의 절벽이나 언덕, 나무 위에 둥지를 튼다.



“ 천연기념물 ”
학술 및 관광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동물, 식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한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재 멸종위기 I급과 II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